

우리에게 필요한 통일은?

전문가 칼럼

이창희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진행한 ‘2017 통일인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20대 청년들의 33.9%가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연령대별 응답에서 통일에 가장 부정적인 세대가 20대였다.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29.2%를 차지하여 연령대별 수준에서 가장 높았다. 혹자들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분석하고, 미래의 통일이 더욱 어렵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와 분석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년들이 어떤 통일을 전제로 대답했는가를 되짚어 봐야한다. 통일한국의 체제를 묻는 질문에 청년층의 42.3%는 남한 현 체제로의 통일을 원했고, 42.7%는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 것으로 대답하였다. 젊은이들은 대체로 남한 체제로의 통일이나 남한 및 북한 체제의 장점을 절충한 모습을 통일의 모습으로 전제하고, 그러한 통일이 필요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의미

현재 청년들이 학습한 교과서에서 제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사실상 높은 수준의 정치적 통합을 추구한다. 교류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민주국가통일의 3단계로 진행되는 통일과정에서 최종 목적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유행한 ‘북한 붕괴론’에도 아랑곳없이 유지되는 북한의 모습,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핵과 미사일 실험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성장한 것이 현재 청년이다. 북한이 갈등, 대결을 연출하는 현실에서 하나의 체제, 또는 절충적 체제로 통일되는 것이 힘들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통일’의 조짐을 보여준다.

(사진=중앙일보DB)

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청년들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무어라 대답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를 택한 20대는 연령대별 수준에서 가장 낮은 반면, “남북 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답한 20대는 연령대별 수준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지금의 청년들이 원하는 통일의 본질이 평화임을 의미한다.

과거 독일 분단시절, 1969년 빌리브란트 서독수상은 동독을 인정하면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통한 긴장완화를 꾀하고자 ‘신동방정책’을 수립하였다. 신동방정책은 하나의 체제로 법적인 국가통일을 강조하지 않고, 평화를 강조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한 간접적이고 점진적인 민족통일을 추진한 정책이었다. 여기서 비롯된 개념이 동서독 주민들이 교류와 협력을 하면서 공동번영을 꾀하는 ‘사실상의 통일’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통일’ 개념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아들여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남과 북이 모두 이익을 실현한 ‘개성공단’ 등이

성과였다.

이를 보며 성장한 대학생들은 ‘사실상의 통일’ 개념을 선호한다. ‘결과로서의 법적 통일’에 얽매이지 않고, ‘과정으로서의 공존·상생 통일’을 이미 평화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높은 경제성장의 부유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불투명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분단에서 비롯된 ‘코리아 리스크’ 등으로 미래의 전망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바람이 모여서 이제 한국 사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려 한다. 지난해 4월 전쟁위기설, 8월 전쟁위기설을 딛고, 12월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통해 극적으로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면서 평화이벤트를 성사시켰다. 그렇게 조성된 한반도 평화 국면을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발전시키면서, 북미정상회담 국민까지 도출하여 지속적인 평화 평화분위기를 연출하였다.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합의되어 발표되었다.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 및 다방면적인 교류협력 등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협의 실질적 해소,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및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의 통일’ 국면이 재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물론 당면 한반도 평화적 전환기의 1차적 마치는 북미정상회담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놓고 속도와 보상에서 북한과 미국이 품고 있는 생각이 다르지만, 현재까지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다. 다렌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였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재방문하여 김정은과 대화한 후, 역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석방되었다.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6월 12일 싱가포르로 결정되었다. 남은 것은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대북제재 해제 및 보상 등의 시간표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개막에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밝게 조성될 것이다.

참여마당

박경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장)



70년만의 총장선출제 논의를 바라보며

지난 대학평의위원회와 법인이사회에서 총장선출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와 제안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이러한 구성원들의 관심 그리고 법인과 대학 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환영한다. 현재까지 우리 대학은 총장선출제가 아닌 총장선임제를 채택해 왔다. 물론 총장을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총장선임제는 우리 대학의 창학이념과 교훈에 위배되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러한 비민주적인 제도가 민주주의를 말하는 우리대학에서 지난 70년간 유지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속도를 내어, 우리 대학의 높은 이상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대학평의위원회에서 학생, 교원, 직원, 동문 구성원 대표들이 합의한 총장선출제안을 나는 존중한다. 이 안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구성원의 협의체에서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합의된 안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남아있다. 우리가 70년 가까운 경희학원의 역사에서 총장선출제를 하지 못한 것은 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안은 이미 존재해 왔다. 문제는, 이 안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이사회와 총장이 구성원 단체의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의사가 있는가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사회와 총장이 개교 70주년이 되기 전에 대학을 공공에게 돌리고, 민주적인 대학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

보잘것없는 내 생각을 보낸다면, 나는 기존의 합의안에, 이번엔 문제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헌법 개정안처럼 ‘4년 중임제’ 혹은 ‘4년 연임제’를 추가하길 제안한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도, 대통령이 집권 3,4년이 지나면, 자기 말만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한다. 그 독신을 극복하지 못한다. 비교적 민주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대통령들도 그러한 비판을 벗어나지 못했다.

행정권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그럴진대, 대학의 총장은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손에 쥐고 있는 형상이다. 여기에 최근 법인의 인사권한이 대학으로 넘어왔고, 감사기능까지도 대학에 의존하고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이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듯하다. 선출되며 견제 받는 권력조차도 부패할진대, 선출되지 않으며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 자체가 민주주의와 정확히 역행한다. 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최대 8년간만 총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물론 연임하는 경우에도, 중간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구성원들은 기나긴 말잔치에 지쳐왔다. 이사회와 총장께, 우리 대학을 민주적인 총장선출의 기반위에 올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의 유일한 학내 언론인 대학주보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구성원들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들어주길 기대한다. 우리 전국대학노동조합은 70년 민주사학, 명문사학인 우리 경희대학교가 ‘학원의 민주화’의 꽃인 민주적인 총장선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오윤자의 마음 코칭 - ⑤

열려라 참귀(耳) 독심술 아닌 공감적 듣기



오윤자 교수
(아동가족학)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아요. 조별과제를 하는데 조원이 도통 답도 없고 불만이라도 얘기하면 좋을텐데... 부모님께서는 모처럼 용돈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맨날 돈이나 마... 동아리회의에서 의견 냈더니 필요 없는 말만 한다고 화부터 내거나 자기말만 할 뿐. 제가 외계어라도 하는 건지, 스마트폰이 최고예요 제가 얘기하면 그대로 듣고 도와주니까.”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다. 어제 하루 누구랑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면 소통의 정도는 어땠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자. 오래 전 TV 오락프로그램 중 청춘남녀가 사랑의 작대기를 굿던 프로그램이 있었다. 대여섯명이 한 줄로 서서 제시된 단어를 뒷사람에게 전달하는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서로 작대기가 그어져 한 쌍이 되거나 단어를 온전히 전달한 소통을 보면 거의 모든 출연자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보이는 경우거나 온 마음과 몸으로 듣기를 한 경우였다. 우리 생활은 TV 속 오락 프로그램보다 훨씬 중요하지만, 한 쌍이 되

거나 문장을 완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왕왕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이야기한다, 대화한다, 의사소통한다’고 표현한다. 살펴보면, 이 모든 행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누군가와 서로 한다는 행위, 즉 혼잣말이 아니라 주고받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올라간다. 이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로 하여금 상호교류하며 자녀를 양육하도록 지도했다. 번(Berne)은 의사교류를 3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상보적 의사교류는 평행적·무갈등교류로 관계를 유지하며 대화가 이어지는 형태다. “기말고사는 몇 문제인가요?”, “30문제입니다”의 형태가 대표적이다. 교차적 의사교류는 소통의 방향이 서로 어긋나는 형태의 갈등교류다. 예를 들면, “지금 몇 시니?”, “넌 시계도 없니?”의 모양이다. 특정주제에 관한 의사소통이 즉각 중단되기 일쑤이다. 암시적 의사교류는 사회적 자아와 심리적 자아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수준을 가지고 표면적 메시지가 심리적 메시지를 포함하는 형태다. “강의 시작

은 9시입니다(자네 또 지각이네)”, “예 알고 있습니다(한번 봐 주십시오)”같은 형태가 예시일 것이다.

사례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모든 소통에서 저마다 다른 입장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넘어 소통을 이룰 수 있을까?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각자의 대화양식이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일방적인 명령과 금지에 복종하며 자신의 자율성을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행동양식을 학습하기도 했다. 무관심 보다는 차라리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세대 간엔 교차적 의사교류 상황이 발생하기도 있다. 자신만 입이 있고 감정을 함부로 발산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함에도 그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이기심 대마왕도 있다. 내 마음은 읽히기 싫고 다른 사람의 마음만을 읽기 원하는 독심술사도 있다. 꼭꼭 참는 척 하다가 한 순간 폭발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이도 있다. 이상의 모습들은 교류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다. 습관이 된 대화양식이나 행동양식은 노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나쁜 정(情)과 교차적 의사교류는 오탁과 상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소통을 위해 기초적인 2가지 방법을 권유해 본다. 하나는 공감(empathy)으로 상대방을 보고 느낀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함이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 상태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강도의 조율이 필요하다. 약기의 개성은 유지하되 조화가 중요한 합주와 같다. 또 하나는 듣기, 경청으로 언어적 메시지뿐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도 관찰해 상대방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듣는 것이다. 경청은 상대방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음을 앎과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면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음과 귀의 문을 열자

공감과 경청은 내면의 문제 해결과 성숙한 인격의 동반을 요구한다. 속 시원한 소통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과 귀의 빗장을 여는 귀인(貴人)이 되어야 한다. 믿을 놈 없다는 세상에 내가 ‘믿을 놈’이 된다면, 상대방의 문을 두드려 어렵게 열리는 마음의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다면 이는 멋진 인연이 될 것이다. 관계를 튼튼하며 소통을 잡음 대신 멋진 음악을 들어보자.